DBpia

# 《破閑集》의 詩學的 性格

저자
(Authors)

金鎭英

출처
(Source)

진단학보 , (73), 1992.6, 205-216 (12 pages)
THE CHIN-TAN HAKPO , (73), 1992.6, 205-216 (12 pages)

발행처
(Publisher)

진단학회
The Chin-Tan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5974

APA Style

金鎭英 (1992). 《破閑集》의 詩學的 性格. 진단학보, (73), 205-21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3 17:5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破閑集》의 詩學的 性格

金 鎭 英
(慶熙大 敎授)

〈目 次〉

1. 머리말
2. 《破閑集》의 편찬의식과 '破閑'의 의미
3. 《破閑集》의 단락별 내용 검토
4. 詩論 分析
1) 語意俱妙
2) 托物寓意
3) 文章之價
4) 民意譏과 諷諫
5. 맺음말

## 1. 머 리 말

李仁老(의종 6~고종 7, 1152~1220)는 고려 무신집정기 문단에서 詩名을 떨쳤던 文士이다.[1] 그는 고려 전기 문벌가문의 후예였지만 무신란 이후에는 名家出身이란 성분이, 그의 自負와 긍지[2] 외에는 현실적인 立身에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하였고, 장원급제한 문학역량만이 힘이 될 수 있었다. 그는 '腹藁'[3]라고 지칭되었듯이 詩文의 저술에 뛰어나 《銀臺集》을 비롯한 문집을 남겼으나, 현재는 詩話書인 《破閑集》과 시문 일부(補閑集·東文選 所收)가 남아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파한집》은 詩論·詩評·詩逸話 등이 수록된 최초의 批評的 저작이기 때문에 古典批評史上 큰 의의를 지니게 되었고, 그의 시인으로서의 면모보다 詩論家로서의 위상이 더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파한집》의 편찬의식과 기술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旣往에 논의된 이인로의 文學思想과 詩學的 特性에 대하여 反省的인 考察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이인로가 同時代 新興士大夫의 전형적 인물인 李奎報와는 문학사상면에 있어 對立的인 존재라고 보고서 新意·用事論을 전개하는 立論이 과연 온당한가를 재검토함으로써 실상을 밝혀, 이인로의 문학론의 양상은 어떠하고, 핵심은 무엇인가를 《파한집》에 근거하여 새롭게 이해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인로가 성품이 偏急하여 당세에 거슬려서 크게 쓰이지 못했다는 기록[4]을 《파한집》의 기술 내용과 관련시켜 봄으로써 文士로서의 인간적 풍모도 재구해 보고자

1) 高宗朝 翰林諸儒의 所作인 「翰林別曲」 1장에서도 '仁老詩'라 하여 그를 代表詩人으로 꼽고 있다.
2) 破閑集 下, "僕先祖 世世文章相繼 紅紙相傳今已八葉矣"
3) 파한집 跋文
4) 高麗史 卷 102 列傳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3 17:55(KST)

한다.

## 2. 《破閑集》의 편찬의식과 '破閑'의 의미

날마다 西河 耆之(林椿)와 濮陽 吳世材의 무리로 더불어 친밀한 짝이 되어 꽃 피는 아침 달 밝은 저녁에 일찌기 같이 지내지 않은 때가 없었으니 세상에서 竹林高會라 하였다. 취했을 때 서로 말하기를, "麗水 물가에 반드시 良金이 있고, 荊山 밑에 어찌 美玉이 없으리오. 우리 本朝는 地境이 蓬萊·瀛洲와 접근하여 옛날부터 神仙의 나라라고 하였다. 그 靈異한 기운을 타고 間間이 재주가 나서 아름다운 이름을 중국에 드러낸 사람들로, 學士 崔孤雲이 앞에서 부르고 參政 朴寅亮이 뒤에서 和答하며 名儒와 韻釋이 시를 잘 지어 명성을 異域에 떨친 것이 대대로 있었다. 만약 우리들이 거두어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지 아니하면 없어져서 전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하였다.

드디어 中外의 작품 중에서 法이 될만한 것을 收拾하고 편집하여 세 권을 만들어 破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또 친구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閑이라고 한 것은 대개 功名을 이루고 은퇴하여 수레를 綠野에 걸어 두고서 마음에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자와 또는 자취를 산림에 감추어 주리면 먹고 곤하면 자서 아무 일이 없는 자라야 그 한가한 것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나 눈을 이 책에 붙이면 온전한 한가함을 깨칠(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대체 塵勞에 시달리고 名宦에 골몰하여 炎涼에 좇아서 東西로 분주하던 자가 하루 아침에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외모는 한가로운 것 같으나 마음 속은 들끓을 것이니 이는 또한 한가함이 병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 눈을 붙이면 또한 한가한 데서 온 病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마둑이나 장기를 두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였더니, 당시에 듣는 이들이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

(孽子 世黃 謹誌 中)

《파한집》의 편찬 경위를 밝히고 있는 위의 글은 이인로의 아들 世黃이 직접 쓴 것이므로, 실상에 가장 가깝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는 《파한집》의 편찬의식과 '破閑'의 진정한 의미 및 문학을 통한 '閑'의 성취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파한집》의 편찬의식은, 본으로 삼을 만한 詩文을 수습하여 기록·보존하려는 證言意識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竹林高會(七賢)의 視覺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破閑'의 의미는 '閑의 온전한 경지를 이룸'이지 결코 심심파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破閑은 全閑이나 完閑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似閑(外閑)이나 病閑의 극복에서 閑 본래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功名을 다 이루었거나 隱遁自樂함으로써만 비로소 획득 가능한 閑의 온전함을 不朽의 盛事인 文學의 成就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문학지상주의적 태도와 文士的 문예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法이 될 만한 문학의 가치부여 방향을 竹林高會의 문학적 지향에 주로 일치시켜 작품을 수습하고 品評함으로써 수록한 작가와 작품의 범위가 限定되었다. 그럼으로써 崔滋의 《補閑集》은 바로 이 未廣(其書未廣)을 續補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며, 여기에서 문학의식의 지향의 차이가 구체적인 작가·작품 對比를 통한 批評作業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3 17:55(KST)

## 3. 《破閑集》의 단락별 내용 검토

| 順 番 | 序 頭 | 內 容 | 性 格 |
|---|---|---|---|
| 卷上 1 | 晋陽古帝都～ | 晋陽圖와 鄭與齡의 詩<br>'一座服其精敏' | 詩 評 |
| 2 | 讀惠弘冷齋夜話～ | 냉재야화와 혜홍의 시・自作詩<br>'惠弘雖奇才亦未免瓦注' | 詩 評 |
| 3 | 文房四寶～ | 문방사보와 먹 제조의 수고<br>李紳(唐)의 「憫農」시・自作詩<br>'誠仁者之語' | 詩 評 |
| 4 | 鷄林人金生～ | 金生・景赫・金立之의 글씨・自作詩<br>'用筆如神' '筆勢奇逸' | 書 評 |
| 5 | 恒陽子眞～ | 咸淳의 인품・自作詩<br>'先生萬古詩名' | 逸 話 |
| 6 | 黃壯元彬然～ | 황빈연의 시・自作詩<br>'玩味之深有理趣' | 詩 評 |
| 7 | 湍州北仰岩寺～ | 앙암사와 自作詩 | 逸 話 |
| 8 | 元宵～ | 燈籠과 自作詩<br>'上大加稱賞是後皆詠燈自僕始' | 詩 評 |
| 9 | 昔仁王初～ | 장원급제인사・自作詩<br>'共是龍門第一人' | 逸 話 |
| 10 | 樞府金立之～ | 김입지・金君綏의 詩와 墨畵・自作詩<br>'得其家法甚妙' | 畵 評 |
| 11 | 碧蘿老人～ | 벽라노인・이인로의 墨竹과 시・自作詩<br>'彫琢之餘盤薄之巧～可謂凝神' | 畵 評 |
| 12 | 僕嘗於貴家壁上～ | 自作詩와 草書<br>'以謂唐宋時人筆' | 詩 評 |
| 13 | 天水亦樂～ | 自作詩<br>'僧誦此詩' | 逸 話 |
| 14 | 智異山～ | 지리산 靑鶴洞과 桃源・自作詩<br>'桃源～實與靑鶴洞無異' | 逸 話 |
| 15 | 門生之於宗伯也～ | 門生과 恩門 고사와 시・自作詩 | 逸 話 |
| 16 | 回文詩～ | 회문시의 유래・작가、自作回文詩<br>'盖文字中戲耳'<br>'夫回文者～語意俱妙然後謂之工' | 詩 論 |
| 17 | 菊有品彙至多～ | 국화와 시・自作詩 | 逸 話 |
| 18 | 睿王天性好學～ | 예종・康日用의 시・自作詩<br>'其用事精妙' | 詩 評 |
| 19 | 詩之巧拙～ | 和答詩의 어려움・自作詩<br>'詩之巧拙不在於遲速先後～僕亦未免於牽强' | 詩 論 |
| 20 | 毅王初～ | 의종・문신들의 靑牛詩・自作詩<br>'使事雖工而語頗涉不恭故以爲亞' | 詩 評 |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3 17:55(KST)

| 順番 | 序頭 | 內容 | 性格 |
|---|---|---|---|
| 卷上 21 | 琢句之法～ | 琢句의 妙를 얻은 두보·소식·황정견<br>'琢句之法唯少陵獨盡其妙～及至蘇黃則使事益精逸氣橫出琢句之妙可以與少陵并駕' | 詩論 |
| 22 | 本朝學士黃元～ | 김황원 등의 苦吟詩·自作詩<br>'正如珠草不枯玉川自美' | 詩評 |
| 23 | 牛後～ | 교방妓 原玉에 대한 시·自作詩 | 逸話 |
| 24 | 昔僕出佐桂陽～ | 이인로 自作詩와 한언국의 평<br>'此古人所謂詩中畵也' | 詩評 |
| 25 | 皇統三年～ | 君臣間의 聯句 | 逸話 |
| 卷中 1 | 智者見於未形～ | 문극겸의 忠諫과 시·自作詩<br>'人謂之鳳鳴朝陽' | 人物評 |
| 2 | 樞府金富儀～ | 김부의의 재능과 시<br>'所傳者必讐策也' | 詩評 |
| 3 | 仁王幼臨大寶～ | 최사전의 공적·金存中의 誥·金莘尹의 시<br>'時人謂之切理' | 文評 |
| 4 | 自雅缺風亡～ | 두보의 忠義·김영부의 우국<br>'立語精硬～忠義之節'<br>'憂國之誠老而益壯' | 詩評과 人物評 |
| 5 | 仁王卜得～ | 李之氐의 시<br>'對偶精切固無斧鑿之痕' | 詩評 |
| 6 | 金侍中緣～ | 김연과 맹초의 시 | 逸話 |
| 7 | 尙書金子儀～ | 김자의의 奇節과 시<br>'有諍臣風' | 逸話와 人物評 |
| 8 | 眞樂公資玄～ | 이자현의 詩·表와 곽여의 시 | 逸話와 人物評 |
| 9 | 郭處士輿～ | 곽여의 시와 예종의 詩詞<br>'豈惟仙風道韻足以傾動人主意至於文章亦勁敏絕倫' | 人物評과 詩評 |
| 10 | 太白山人戒膺～ | 계응의 득도와 시<br>'夫得道者之辭優游閑淡而理致深遠' | 詩評 |
| 11 | 西湖僧惠素～ | 혜소의 인품 | 人物評 |
| 12 | 金蘭境有寒松亭～ | 계응·혜소의 시<br>'師組織雖工未若前篇天趣自然' | 詩評 |
| 13 | 碧蘿老人去非～ | 無名氏의 시<br>'其語法與唐宋人無異' | 詩評 |
| 14 | 芬皇宗光闡師～ | 광천사의 大醉와 足庵의 偈 | 逸話 |
| 15 | 華嚴月師～ | 화엄월사와의 교유·임춘의 시<br>'如今眉叟眞奇士' | 人物評 |
| 16 | 江夏黃彬然～ | 황빈연·김신윤의 聯句 | 逸話 |
| 17 | 金學士黃元～ | 김황원·李仲若·곽여의 神交<br>'二公不覺屈膝曰雖古人何遠' | 詩評 |
| 18 | 昌華公李子淵～ | 이자연의 甘露寺 애호와 詩集<br>'我東國～山川淸水甲於中朝萬萬' | 逸話 |
| 19 | 鳳城北洞安和寺～ | 안화사와 시 | 逸話 |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3 17:55(KST)

| 順番 | 序頭 | 內容 | 性格 |
|---|---|---|---|
| 卷中 20 | 京城東天壽寺～ | 천수사와 李寧의 名畵<br>'畵局李寧尤工山水' | 畵評 |
| 21 | 神王七年～ | 이인로의 아들 전별과 시 | 逸話 |
| 22 | 西都永明寺～ | 영명사 浮碧寮와 김황원의 시<br>'至今以爲絕唱' | 詩評 |
| 23 | 文昌公崔致遠～ | 최치원의 시·顧雲의 전별시 | 逸話 |
| 24 | 金庾信鷄林人～ | 김유신과 天官고사. 李公升의 시 | 逸話 |
| 25 | 明皇時大叔僧統寥一～ | 요일의 乞退詩와 明宗의 시<br>'誠可仰也' | 詩評 |
| 卷下 1 | 鷄林舊俗～ | 花郎·八關會와 곽동순·곽여의 詩文<br>'上大加稱賞' | 詩評 |
| 2 | 睿王尤重儒生～ | 四無益詩를 쓴 高孝冲<br>'有諍臣風' | 人物評 |
| 3 | 士子朴元凱～ | 박원개의 文才와 시<br>'使事精妙' | 詩評 |
| 4 | 詩家作詩～ | 點鬼簿·西崑體와 蘇黃·임춘의 시<br>'多使事謂之點鬼簿～無斧鑿之痕'<br>'耆之亦得其妙' | 詩評 |
| 5 | 僕爲兒時～ | 천마산 山寺에서 찾은 시편<br>'其語淸而苦' | 詩評 |
| 6 | 南州樂籍有倡～ | 정습명이 기생에게 준 시와 어진 인품 | 逸話 |
| 7 | 黃公純益～ | 황순익의 재능과 시<br>'嗜酒少檢束低徊薄宦久不得遷轉' | 人物評 |
| 8 | 西河耆之～ | 임춘과 시<br>'其用事益精此古人所謂瘦金結纖而無痕迹' | 詩評 |
| 9 | 白雲子神駿～ | 隱士 신준과 시 | 逸話 |
| 10 | 僕先祖～ | 이인로의 장원급제와 三子登科·高陽月師의 시<br>'僕先祖世以文章相繼～僕以不才偶居多士之先' | 逸話 |
| 11 | 京城西十里許～ | 노영수·유수의 시 | 逸話 |
| 12 | 朴君公襲～ | 박공습의 嗜酒와 시 | 逸話 |
| 13 | 學士彭祖遜～ | 팽조적의 성품과 詩·頌<br>'爲文章必有根柢'<br>'其險如是' | 詩文評 |
| 14 | 學士金黃元～ | 김황원의 시와 '分行集'<br>'屢陳藥石未得回天之力' | 逸話 |
| 15 | 草堂秋七月～ | 印份의 시<br>'可謂名下無虛士矣' | 詩評 |
| 16 | 皆骨關東名山也～ | 개골산과 田致儒의 시 | 逸話 |
| 17 | 東館是蓬萊山～ | 정습명의 '石竹花'시와 황보탁의 '芍藥'시<br>'有王臣風'<br>'明良相値豈偶然哉' | 人物評 |
| 18 | 白雲子～ | 신준과 임춘의 시<br>'古今詩人托物寓意多類此～所謂詩源乎心者信哉' | 詩評 |
| 19 | 鷄林人金生～ | 金生·大鑑國師의 필적과 權適의 시 | 詩書評 |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3 17:55(KST)

| 順番 | 序頭 | 內容 | 性格 |
|---|---|---|---|
| | | '筆法奇妙' | |
| | | '文章可使爲灰燼落落雄名安可焚' | |
| 卷下 20 | 堂弟尙書惟卿～ | 李陽實의 시와 黃山谷論詩 | 詩論 |
| | | '以謂不易古人之意而造其語謂之換骨～豈所謂出新意於古人所不到者之爲妙哉' | |
| 21 | 石鼓在岐陽～ | 石鼓文과 自作詩(二十韻) | 逸話 |
| 22 | 天下之事～ | 문장의 가치와 오세재의 시 | 詩論 |
| | | '天下之事不以貴賤貧富無之高下者唯文章耳～文章自有一定之價富不爲減' | |
| 23 | 世以科第取士尙矣～ | 文章과 爵祿의 차질, 龍頭會·自作詩 | 詩評 |
| | | '盖文章得於天性～雖文章德譽足以聳動千古而位不登於卿相矣' | |
| | | '詞語雖蕪拙' | |
| 24 | 傳曰在南爲橘～ | 御花苑의 귤나무·自作詩(十二韻) | 逸話 |
| | | '況人主之用人毋論遠近踈戚結之以恩愛養之以祿秩則安有不盡忠竭誠以補國家哉' | |
| 25 | 耆之避地江南～ | 임춘의 궁곤과 시 | 逸話 |
| 26 | 白學士光臣～ | 백광신과 시 | 逸話 |
| 27 | 昔元曉大聖～ | 無导歌·偈·無导歌讚 | 逸話 |
| 28 | 僕八九歲～ | 古人警句와 이인로의 評 | 詩評 |
| | | '詞甚的語意俱妙' | |
| 29 | 毅王詔五道～ | 의종의 採詩, 措大·金克己의 愛民詩 | 詩評 |
| 30 | 西都古高句麗所都也～ | 鄭知常의 絕唱 | 詩評및人物評 |
| | | '有古諍臣風' | |
| | | '其語飄逸出塵皆類此' | |
| 31 | 紫薇鷄林壽翁～ | 壽翁과 崔鈞의 시 | 詩評 |
| | | '詞與筆俱遒勁' | |
| | | '詞語流麗皆此類' | |
| 32 | 士子徐文遠～ | 서문원과 權惇禮의 시 | 逸話 |
| 33 | 今司空某～ | 司空某의 시와 인품 | 詩評 |
| | | '飄飄然有凌雲氣格' | |
| 跋文 | 南華篇曰～ | 아들 世黃의 발문 | |

《파한집》의 내용 검토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卷上에서는 거의 매단락(시화)마다 이인로의 自作詩가 제시되거나 稱賞되고 있다.

둘째,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詩評이나 그 밖의 書評·畵評·人物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評語는 지극히 簡略하고, 단편적이며 한정되어 있다. 이 점에서 崔滋의 「補閑集」에서 다양한 品評 용어가 구사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셋째, 등장시킨 人物이 그의 人物觀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즉 이인로는 '諍臣風'이 있는 인물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넷째, 詩·書·畵뿐만 아니라 풍속이나 풍물, 역사 등 문화 전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3 17:55(KST)

다섯째, 名篇·佳句의 채록시에 精妙性에 치중하고 있다.

여섯째, 詩論의 전개에서는 문학의 가치와 創作論에 치중하고 있다.

## 4. 詩論[5] 分析

앞의 《파한집》 검토에서 詩論과 詩評으로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이인로가 담지하고 있었던 詩學의 성격을 몇 가지 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語意俱妙[6]

回文詩는 齊·梁에서 시작되었으니 대개 문자의 한 유희일 뿐이다.

대저 회문시란 순서대로 읽으면 화하여 쉽고 거꾸로 읽어도 음운이 빽빽하거나 어려운 態가 없어 말과 뜻이 함께 妙한 뒤에라야 공교하다고 한다. (卷上 16)

이인로는 語意俱妙를 詩創作上의 理想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작품의 品評에 있어서도 語妙나 意妙를 논한 대목이 많다. 특히 形象化의 경지는 無斧鑿之痕[7]을 가장 높이 평가하여 自然生成의 경지에 이르러야 妙하다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한 작업으로 鍊字琢句之工이 필수적이고, 단지 一字를 안배하기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체득하여야 하며, 和答과 對偶의 精切性, 用事의 精妙性, 新意의 創出 그리고 묘사가 뛰어난 회화적 시세계 즉 詩中畵의 성취가 요구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① 시구를 조탁하는 법은 오직 두보가 그 妙를 다했다.

또 사람의 재주란 그릇의 모나고 둥근 것과 같아 함께 겸비할 수 없다. 천하에 기이한 경치나 이상한 구경거리가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많지만, 실로 재주가 뜻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둔한 말의 발굽이 燕越 천리길에 나선 것처럼 채찍질을 아무리 해도 멀리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은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감히 경거망동하게 손을 놀리지 않고 반드시 갈고 닦는 공을 더한 후에라야 무지개처럼 빛을 드리워 천고에 빛낼 수 있었던 것이다. 旬季마다 단련하고 朝夕으로 음풍하며 수염을 비벼가면서 고심하여 써도 一字를 제대로 안배하기가 어렵다.

蘇黃에 이르러서는 고사를 사용한 것이 더욱 정교하고, 빼어난 기상이 횡출하여 시구를 다듬은 절묘함이 두보와 더불어 서로 견줄 만하다. (卷上 21)

② 시의 잘 짓고 못짓는 것은, 더디 짓고 빨리 짓거나 먼저 짓고 나중에 짓는 데에 달린 것이 아

5) 이인로의 詩論과 破閑集에 관련된 주요 논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조종업, 「고려시론연구」(충남대, 어문연구회, 1963)
서수생, 「竹高七賢의 영수, 眉叟文學」(고려조한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1)
최신호, 「초기 시화에 나타난 用事이론의 양상」(고전문학연구 1,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71)
김진영, 「이인로의 현실관과 문학사상」(관악어문연구 4,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9)
정요일, 「用事와 新意가 오해된 이유」(성기열 박사 화갑논총, 1989)
조동일, 「이인로와 이규보의 문학사상의 거리」(이우성 교수 정년기념논총, 1990)
심호택, 「고려중기 문학론연구」(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1)

6) '語意俱妙' 표현은 인용한 卷上 16 외에 卷下 28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7) '無斧鑿之痕'의 표현은 인용한 卷中 5, 卷下 4, 卷下 8 등에서 거듭 사용되고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3 17:55(KST)

니다. 그러나 唱하는 이는 먼저 하고 여기에 和答하는 이는 항상 나중에 하므로, 唱하는 이는 여유있고 한가해서 재촉받음이 없으나 화답하는 이는 억지로 끌려 험벽한 데에 빠지게 됨을 면치 못한다. (卷上 19)

③ (李之氐의 시) 對偶가 정치하고 뛰어나 정말 기교 부린 흔적이 없다. (卷中 5)

④ 그(林椿)의 고사를 사용하는 솜씨는 더욱 정교하여 古人이 말한 바, '금실로서 수를 놓았다'고 할 만한 것으로 조금도 흔적이 없다. (卷下 8)

⑤ 시인들이 시를 지을 때 고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點鬼簿'라 하고, 이상은은 고사를 인용하는 것이 험벽하다 하여 '西崑體'라 하는데 이것은 모두다 문장의 한 병폐이다. 근래에 와서 소동파와 황산곡이 산처럼 우뚝 솟아, 비록 그 법을 따르고 숭상하면서도 造語가 더욱 잘 다듬어져 조금도 깎고 다듬은 기교의 흔적이 없으니 정말 靑出於藍이라 할 만하다. (卷下 4)

⑥ 옛적에 황산곡이 시를 논하여, '고인의 뜻을 바꾸지 않고 말을 바꿔 표현하는 것을 換骨이라 하고, 고인의 뜻을 법받아 형용하는 것을 奪胎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남의 詩文을 모방만 하는 것과의 차이가 천지차이라 할지라도, 표절해놓고 공교하다고 이르는 것을 면치 못하겠으니, 어찌 고인이 이르지 못한 경지에서 이른 바 신의를 창출하는 妙라 하겠는가. (卷下 20)

⑦ 이 한 시구를 들으니 그 山光水色이 눈 앞에 있는 듯 역력하다. 이것은 바로 옛날 사람들이 말한 바, '詩中畵'이다. (卷上 24)

이상의 引例를 통하여 이인로는 단순히 用事論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作詩上의 正道를 語意俱妙에 두고서 創作論을 전개한 詩論家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가 意妙보다도 語妙에 관한 사항인 對偶·用事·詩中畵 등 표현의 문제에 더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創作時의 언어적 鍊琢을 강조한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지, 意妙를 소홀히 한 것은 결코 아니다.

李奎報도 詩創作上의 理想을 '語意得雙美'(「論詩」詩·東國李相國集)에 두고 있는 바, 이는 동시대 문인으로서의 同質性을 보여주는 점이다. 다만 이규보의 경우 '語意雙美'를 위해서 語意의 '創新'을 중시한 반면, 이인로는 '妙道'의 획득에 치중한 점이 個人差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이인로와 이규보의 문학사상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것은 출신성분의 차이에서 피할 수 없이 결과된 것이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아닌 것이다.

이인로도 點鬼簿·西崑體 등이 문장의 병폐라고 하여 배격하면서, 古人이 이르지 못한 바의 新意의 창출에서 意妙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규보가 「論詩中微旨略言」 가운데 '九不宜體'를 통하여 載鬼盈車體·拙盜易擒體·設坑導盲體 등이라 하여 失敗한 用事나 難解性 등을 배격하고 있는 바와도 상통된다. 다만 이인로는 詩(文學)가 言語藝術이라는 관점의 투철한 인식에서, 언어적 형상화 문제를 우선적으로 중시한 것이었지, 하필 用事만을 내세운 것은 아니었다.

문학이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과 형식은 작품 속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내용이나 형식만이 독자적으로 美的 成就가 가능할 수 없는 통합구조인 것이 문학이다. 그러므로 語와 意를 형식과 내용 그 자체로 직결시켜 이해하고 대립적인 것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3 17:55(KST)

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온당하지 않다. 語意는 형식과 내용이라기보다, 오히려 작품(語)과 작가정신(意)으로 간주될 성질의 표현이다. 語意俱妙나 語意雙美는 그런 점에서 다른 말이 아니다. 다만 '妙'와 '美'의 창출 방향과 경지의 설정은 문학관과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분별될 사항이다.

그런데 이규보는 《東國李相國集》이 남아 있고 거기에 본격적인 文學論이 收載되어 있어서 그의 문학사상을 살펴봄에 논거상 무리가 없으나, 이인로는 단편적 기술물의 집적인 《破閑集》 외에 그의 詩文集이 현재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문학사상을 정심하게 천착하는 데에는 난점이 따를 수밖에 없다.

'語意俱妙', '新意', '用事'만 하더라도 이인로와 이규보가 전혀 相異한 관점에 서서 용어를 사용했다기보다, 이인로가 문제삼고 중시했던 기본 관점을 이규보가 수용하면서 이를 확충하여 구체화했다고 봄이 옳겠다. 즉 시 창작론에 있어서 이인로의 '語意俱妙'론은, 이규보에게 와서 '語意雙美'론으로 수용되고, 이를 심화시킨 것이 이규보의 「論詩中徵旨略言」·「答全履之論文書」 등에서의 詩論이라고 본다.

### 2) 托物寓意

白雲子(神駿)가 유학을 버리고 불교를 배웠다. 시를 많이 지어가지고서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꾀꼬리 우는 소리를 듣고 느낀 바 있어 절구 한 수를 지었다. "붉은 부리와 노란 옷이 곱다고 스스로 자랑하나니, 붉은 담 푸른 나무를 향해 울어야 마땅하겠거늘, 어찌하여 거친 마을 쓸쓸한 곳에 떨어져 수풀을 격해 때때로 두세 마디 보내는고."

나의 친구 耆之(林椿)도 失意해서 강남을 유랑하다가 꾀꼬리 소리를 듣고 역시 시를 지었다. "농가에서는 오디가 익고 보리 이삭 빽빽해지려 하는데, 푸른 나무에서 처음으로 꾀꼬리 소리를 듣네, 서울에서 꽃 아래 놀던 나그네 알기라도 하는 듯이, 은근히 백번이나 울며 쉬지 않네."

고금의 시인의 托物寓意가 대부분 이와 같다. 두 분의 작품은 처음에 서로 약속한 것이 아닌데, 표현한 사연이 처절하고 원망스러움은 마치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 같다. 그들이 재주는 있으나 쓰이지 못해 天涯에 떨어져 나그네로 떠돌아 다닌 모습이 몇 자 속에 또렷이 나타나 있다. 이른바 시는 마음에 근원을 둔다는 것이 신실하다.(卷下 18)

위의 글에서 이인로는 古今의 시인이 자신의 마음과 뜻을 표출함에 있어 사물에 기탁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물의 시적 형상화에 시인의 마음이 주도적으로 작용하여 착색됨을 신준·임춘의 시를 통해 예시하였다. 신준이나 임춘 두 사람이 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인데 발탁되지 못하고 流落하였기에 그들이 듣는 꾀꼬리 소리도 그들의 구슬픈 마음처럼 구슬프게 착색되어 있다. 이른 바 감정이입의 수법을 논한 것이다. 이인로는 시를 지음에 있어 托物寓意의 방법이 구사된 사례를 들고, 그 경우의 시는 마음에 우러난 바의 발로라고 한 것이다. 정습명의 시「石竹花」(卷下 17)에 대해서도 그가 奇才와 偉量을 가졌으면서도 세상에 나설 길이 없음을 한하여, 그 마음을 패랭이꽃에 부쳐 읊었다고 보았다. 마음은 作品 以前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사물에 기탁하여 표출하려면 言語化·作品化 과정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3 17:55(KST)

울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때 사물은 시인의 마음의 언어에 의해 主觀化되며 새롭게 해석된다. 즉 사물〔世界〕이 시인〔自我〕의 영역으로 이끌려 들어오는 抒情의 원리를 古今 詩人들이 作詩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예증하였다.

그렇다고 이인로가 托物寓意만을 作詩방법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니, '詩中畵'를 추구한 것만 보더라도 景物을 마음보다 앞세워야할 경우를 인정한 것이다.

### 3) 文章之價

세상사 중에 貧富나 貴賤으로 高下를 정할 수 없는 것은 오직 文章뿐이다. 대개 완성된 문장은 해와 달이 하늘에 빛나고 雲烟이 허공에서 集散하는 것 같아서, 눈이 있는 사람이면 보지 않을 수 없고 엄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葛布를 입은 비천한 선비로도 넉넉히 무지개처럼 찬란한 빛을 드리울 수 있으며, 趙孟의 귀함이야 그 세도가 나라를 부하게 하고 집안을 넉넉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랴만 문장에 있어서는 칭찬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문장은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富로써도 그 가치를 감소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歐陽永叔은, "후세에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면 지금까지도 聖賢이 없었을 것이다"고 하였다.(卷下 22)

이 글은 吳世材가 궁곤하기 그지없었지만 그의 뛰어난 文章만은 쓰러져 버리지 않고 빛남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즉 文章은 빈부귀천과는 독립적인 독자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여 文人의 남다른 自負心을 드러내고 있다. 이인로에 있어서 家門의 자랑도 '文章相繼'에 있었고, 자신의 긍지도 장원급제한 龍頭會의 一員임에 놓여 있었으니, 모두가 文章의 가치에서 자신의 존재가치와 삶의 의의를 찾는 자세인 것이다. 그리하여 文章과 爵祿은 서로 차질을 빚기도 하여, 才藝가 뛰어난 사람이 功名은 이루지 못한 사례를 역사에서 확인하면서, 세상 만물에게 아름다운 것을 독점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논하기도 하였다.

대개 文章은 天性에서 얻어지는 것이나 爵祿은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도리로 구한다면 쉽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아름다운 것만을 독점하게 할 수는 없었으므로, 뿔이 있는 것에게는 이(齒)를 버리게 하고, 날개가 있으면 두 다리만 있게 했으며, 이름 있는 꽃에는 열매가 없고, 채색 구름은 흩어지기 쉽게 되었으니, 사람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뛰어난 才藝를 주면 빛나는 功名은 주지 않게 되는 이치가 이렇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자·맹자·순자·양자로부터 한유·유종원·이백·두보에 이르는 분들은 비록 문장이나 德譽로서는 넉넉히 천고에 치솟을 수 있을지라도 지위는 卿相에 오르지 못했으니, 壯元으로 높이 뽑히고 재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실로 고인이 말하는 楊州騎鶴이라 하겠으니 어찌 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卷下 23)

이처럼 이인로는 文學의 力量을 높이 평가하고 文章의 불변의 가치를 천명하였다. 이 점은 《파한집》에서 名章·佳句를 남긴 불우한 문사들의 존재를 거듭 주목하고 있는 데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當代 文人들의 文士로서의 자긍심과 문학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철저했다는 사실은 바로 무신집정기에 오히려 문학의 盛勢를 이룬 史實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대의 李奎報도 「詩癖」시에서 "生死必由是 此病醫難醫"라고 토로하고 있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3 17:55(KST)

는 문인의식과도 상통된다.

#### 4) 民意識과 諷諫

종래 이인로는 구귀족의 후예로, 귀족적 문예의식만을 지닌 文士로 인식됨이 일반적이었고, 民意識의 문학은 新興士大夫의 등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인로의 詩文集이 전해지지 않아 그 전모를 알 수 없지만 《파한집》에서만도 백성의 수고와 통치자의 바른 통치를 문제삼고 있는 작품과 人物들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인로 자신이 체험한 먹제조의 수고를 통해서 生産物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기사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옛사람들은 「憫農詩」(李紳作)에, "쟁반의 밥이 알알이 다 辛苦임을 뉘 알리요"라고 한 것은 실로 仁者의 말이라 하였다. (卷上 3)

한편 어떤 선비와 金坵尹의 다음과 같은 시를 기록하여 그들의 愛民意識과 證言을 높이 사고 있다.

> 어떤 措大가 驛院의 벽에다 쓴 것에는, "종일토록 등에 뙤약볕을 받으면서 밭을 갈아도 한 말 곡식이 없구나, 廟堂에 바꾸어 앉게 한다면 먹을 곡식이야 萬斛이나 될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
> 尙書 김신윤도 용만 군막으로 出鎭하여 역시 시를 짓기를, "백성을 굶어먹고 윗사람에게 아첨하는 풍습이 오래되어 온나라에 즐펀히 속임수만 따르도다."라고 하였다. (卷下 29)

또한 이인로는 조정에서 直言을 잘한 인물들을 다루면서 '諍臣風'이 있었다고 高評하였다. 金子儀(卷中 7)·高孝冲(卷下 2)·정습명(卷下 17)·鄭知常(卷下 30) 등이 그 사례이다. 이점은 이인로 자신이 추구한 삶과도 연관된다고 본다. 《고려사》에서 "그의 성품이 偏急해서 當世에 크게 쓰이지 못했다"고 한 人物評은 이인로 역시 諍臣風이 있어 시류에는 잘 和合하지 못했음을 반영한 言及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인로가, 杜甫의 忠義之節·김영부의 憂國之誠이 담긴 시를 논한 것(卷中 4)도, 그의 詩學에 있어서 愛民意識과 忠諫을 소중히 여긴 자세를 보여주는 점이 된다. 이같은 경향이 확충되어 나타난 것이 이규보·김극기 등 신흥사대부층의 愛民意識의 詩篇들이라 하겠다.

## 5. 맺 음 말

이인로의 《파한집》은 책의 성격상 詩學의 본격적인 전개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詩話 가운데 詩論 몇 편과 詩評을 통해서 그의 문학사상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최초의 詩話書로, 《補閑集》을 비롯한 이후의 시화서의 저작에 선편이 된 점과 批評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3 17:55(KST)

文學의 효시가 된 점을 전제하고서 《파한집》의 편찬의식과 '破閑'의 의미를 새롭게 주목하여, 그것이 不朽의 盛事인 文學, 독자적 가치를 지닌 문학을 통한 '閑의 온전함을 이룸'이지 결코 심심파적의 의미가 아님을 밝혔다. 《파한집》의 단락별 내용검토를 통해서는 내용의 전반적인 특징을 찾아보았고, 詩論 展開上에 드러나는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따져 보았다. '語意俱妙', '托物寓意', '文章之價', '民意識과 諷諫' 등의 측면에서 그는 文士로서의 투철한 문학의식과 문학가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면서, 前代의 문학전통을 수용 改新하여 다음 세대 詩學의 수립에 초석을 놓았다. 《파한집》의 가치도 바로 이 점에서 찾아진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3 17:55(KST)